

민주노총 지도위원 '현장으로 돌아가 투쟁합니다'

8 편집국 | ㉠ 승인 2014.01.09 15:12

9일 단식 중단, 민주노총 지도부들과 13일부터 현장순회



▲ 민주노총 권영길 지도위원을 비롯한 10명이 단식투쟁을 벌인 지 8일째 되는 9일 오전 민주노총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변백선 기자

권영길, 단병호, 박순희를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위원 10명이 9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을 중단하고 현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지도위원은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단식을 중단한다"며 "노동현장에서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국민들의 투쟁을 조직해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지도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가스, 의료, 교육 등 모든 공공제를 재벌에 넘기려 한다"고 비판하고, "우리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맞선 투쟁을 조직해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8일) 민주노총 전현직 중집위원 1백여 명이 모여 민주노총이 민주주의를 죽이고 있는 박근혜 정권, 모든 공공제를 사기업화 하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광범위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면서 "이제 우리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 속으로 들어가 더 큰 저항과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도위원은 "민주노총 지도위원단은 민주주의를 살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공공성을 강화하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소망했다.

단식을 마친 민주노총 지도위원단은 몸을 추스린 뒤 오는 13일부터 민주노총 지도부들과 함께 2월 25일 민주노총 총파업과 국민파업을 조직하기 위한 전국 순회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1500만 노동자 여러분, 박근혜 정권에 맞서 떨쳐 일어납시다!

- 단식투쟁을 중단하며

우리는 오늘 지난 1월 2일부터 시작한 단식을 중단합니다.

단식기간 중 방문하여 힘을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애정으로 우리의 충정을 지켜 봐 주신 국민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잊지 않겠습니다.

1500만 노동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애초 우리가 단식에 돌입한 것은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투쟁'을 조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박근혜정권의 막가파식 불통정치를 끝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와 민영화 등으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식을 마치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전국에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어제 민주노총 역사상 19년만에 처음으로 모인 전·현직 중집위원들의 "단식을 중단하고, 투쟁을 조직해 달라"는 간곡한 호소에 답하겠습니다. 지도위원단의 전국 순회, 지역별 강연회, 단위노조 간담회 등을 통해 아래로부터 구체적인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다시 현장으로, 거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하나의 들불이 어떻게 광야를 불태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 노동전선을 구축할 것입니다. 어차피 박근혜정권이 시작한 전쟁입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선배노동열사와 민주투사들 앞에 한 점 부끄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할 몫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함께 응원하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4년 1월 9일 민주노총 지도위원단 일동

권영길 김영훈 남상헌 단병호 박순희 이갑용 이수호 임성규 조준호 천영세



